

[오늘의 성가] 시작: 26 봉헌: 332 성체: 161 파견: 6



생명의 빵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물건 저 물건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물건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떼어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붙였습니다. 만 원짜리 상품에는 백만 원을 붙여놓고, 백만 원짜리는 만 원을 붙이는 등, 온통 뒤죽박죽으로 가격표를 바꿔 달아 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백화점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떠한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한 채 정신병자가 바꿔 놓은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갔습니다. 백만 원짜리를 만 원에 그리고 만 원짜리를 백만 원에....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귀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십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 뭍시 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진정한 이유, 즉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백화점에서 한 정신병자가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는 현대의 우리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우리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기에 배고픔을 달래줄 육신의 음식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입니다.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육적인 음식은 장시의 배고픔을 달래주지만 영적인 음식인 생명의 빵은 영원을 달래줍니다. 그렇다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요한 6,29)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제2독서의 에페소서 말씀에서처럼 헛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 안에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 공지사항

1. 새 신자 분들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성당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2. 제 18 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신청 안내
 - 기간: 7 월 22 일~ 10 월 20 일
 - 국외부재자 우편신청, 재외선거인 방문신청
 - 주 시카고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 나누는 삶

나기원 미카엘 신부 | 인천교구 소사본동 본당 보좌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즉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쉬고, 잘 수 있는 집은 더욱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먹는 문제가 가장 컸던 모양입니다. 오늘 복음에 앞서 예수님께서서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십니다. 군중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고 감동 그 자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누구도 자신들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당신을 먹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홀연히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떠난 사실을 알게 된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고 결국 호수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군중에게 실망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 하시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음식을 얻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고 문을 두드려야 할 참된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먹고 마심으로써 잠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꺼지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사를 통해 주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 또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